

2021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소설 김정숙 **“책은 내 인생에 커다란 획 그어 줘”**
 시 이서영 **“마흔 중반 찾아온 시 첫사랑에 빠져”**
 동화 김효진 **“문학은 창문... 열 때마다 새 풍경보여”**

문정 시절 가장 절박한 바람이 있다면 바로 신춘문예 당선일 것이다. 문학을 업으로 꿈꾸는 예비 작가들에게 12월과 1월은 가혹한 달이다. 작품 공모와 심사 그리고 당선작 결정, 시상식이 연말과 연초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리는데 작가 지망생들의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초조하기 그지없다.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도 많은 문정들이 응모를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시 1715편, 소설 213편, 동화 195편 등 모두 2123편이 접수됐다. 예년 수준의 현황을 보인 가운데 김정숙 씨의 '등고선' (소설), 이서영 씨의 '잊다 잊어버리자 잊혀지거나 등등' (시), 김효진 씨의 '8구역 배추자 여자' (동화)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최근 열린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당선작가들과 인터뷰를 했다.

김정숙 소설가는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등단은 내 인생의 유전의 시점이다”며 “이제 흉내가 아닌 전업 작가의 길을 가게 됐는데 기쁨으로 엉덩이 싸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작을 하는 동안 전업작가를 흉내 내듯 오전 9시를 시작으로 5시에 마지막 계획하고 실천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삶은 지독하게 행복해졌다”고 밝혔다.

이서영 시인은 “당선했다는 전화를 받고 얼얼해서 쉽게 말을 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 저장해 둔 시도 별로 없고 '나의 시는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등단해도 되는지 두렵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동화작가는 “시상할 때까지도 여러동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전해지는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만큼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온전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세 당선작가들은 어떤 계기로 문학에 입문하게 됐을까. 저마다 인고의 습작 기간이 있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됐다. 신춘문예 당선이라는 ‘티켓’을 거머쥐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있었을 거였다. “열다섯의 가을, 친척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 사람들이 돌로 무덤을 쌓을 때 바람을 맞으며 한숨의 역사를 겪어 돌무덤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땀에 흠뻑 젖은 글씨를 썼는데, 몸이 꺾인 여새가 붉은 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부터 문학소년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김정숙)

“6년 전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깊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시시 때때로 웅덩이가 생겼어요. 아무도 몰래 가 웅덩이를 향해 울었습니다... 얼마 후 주변의 권유로 땀을 배우기로 결심했구요. 담양 생오씨 문예창작촌의 시장교실에서 시를



김정숙



이서영



김효진

처음 만났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셈이죠.”(이서영)
 “어릴 때부터 책 읽고 무언가를 메모하고 생각을 적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나중에 대학을 문예창작과에 가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과의 특성이 맞지 않아 방향을 많이 했는데 저는 문학과 관련된 이론을 다방면으로 배우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학에 입문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성취를 이루기까지는 슬럼프가 오거나,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회의가 찾아 오기 마련이다.

김정숙 작가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나아갔다고 했다. 그 때문인지 “소설을 쓰는 건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김 작가는 “이 길을 계속 가도 된다는 응답이 간절했다”며 “다섯 명으로 구성된 ‘길나침’ 문우들과 공부하다 새로운 스승을 찾게 됐고 그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서영 시인은 쓰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마흔 중반에 찾아온 시의 첫사랑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시를 쓰지 못할 때, 그때는 책을 읽었다”며 “아무 것도 없이 텅 빈 상태가 되면 다시 무언가 채워지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때가 되면 시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다”며 “시 쓰는 문우들과 교류하며 이런 고민들을 공유했던 것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동화작가는 일상적인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간단한 취미생활이나 수영, 걷기 등을 통해 푸는 편이다. 하지만 “슬럼프라고 말할 정도의 고민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면서도 “그냥 빠져

서 허우적대고 버티는 방법밖에 모르는데, 보통은 새로운 고민이 생겨서 다른데 신경 쓰느라 저절로 잊었던 것 같다”며 웃었다.

세 당선작가들은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문학소녀 시절이나, 습작기에는 흥미로운 작가나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기 마련이다.

“중학교 때 단짝 벗과 로제 마르탱 뒤 가르의 ‘회색 노트’를 읽고 ‘자크’와 ‘다니엘’을 흉내 내듯 회색 노트에 일기를 쓴 뒤 교환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벗과의 교류는 오랜 시간 계속되었죠. 그런 의미로 ‘회색 노트’는 내 인생에 커다란 획을 그어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김정숙)

“시 공부 했던 곳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의 시집을 즐겨 읽었습니다. 특히 박순원 시인의 시는 제 시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가끔이지만 제 시에 나타나는 어떤 위트와 아이러니 같은 것, 중얼거림, 묘사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던 점이 그렇습니다.”(이서영)

“로알드 달, 아스트리드 린드 그렌, 정재봉 선생님 책을 지금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여유시간이 나거나 글을 쓰다가 막힐 때 한 번씩 훑어봅니다. ...또한 저는 문학을 창문이라 생각합니다. 열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보이거든요.”(김효진)

이제 막 당선이라는 ‘자격증’을 쥐게 된 세 작가의 앞에는 문학이라는 길고 지난한 여정이 놓여 있다. 신춘문예 당선은 말 그대로 당선일 뿐이며, 그 자체로 작가 인생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헤쳐 가느냐에 따라 저마다 문학인의 열매는 다르게 맺힐 것이다. 이들의 문학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기대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올해의 작가’ 선정

아트코리아방송 올해 첫 제정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사진) 작가가 아트코리아방송이 주최한 ‘2020년 올해의 작가’에 선정됐다.

지난 8년간 한국예총과 한국미협 소속 예술인들을 비롯해 소속이 없는 문화예술인들을 조명하며 홍보해온 아트코리아방송은 올해 제1회 ‘올해의 작가’를 제정, 사진, 비디오, 공예, 회화 등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작가는 올해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특별순회전시 ‘힘나는 예술여행(아르코 주관)’과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광화문 정문 앞 초대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인 ‘거리로 나온 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시 등으로 시민들에게 일상의 위로를 전달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한국전쟁과 분단을 다룬 ‘한강, 프리즌, 강을 잃어버



린 도시’를 3D전시로 선보였으며 광주 양림동에 창작스튜디오와 복합문화전시공간으로 구성된 이이남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이 작가는 올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통한 관객들과 소통의 접점을 모색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한국-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전시, 중국 허난성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파사드’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도, 워싱턴 등에서 해외 전시를 계획중이다. 국내에서는 사비나미술관 개인전과 전남도립미술관 기념 단체전 등 전시를 앞두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친구’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 소동

배다인 작가 ‘난 나쁜 친구야!’ 펴내

등단 이후 꾸준히 동화를 발표해 온 배다인 동화작가가 창작집 ‘난 나쁜 친구야!’ (소년년길)을 펴냈다.

이번 창작집은 ‘친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그린 단편 동화집이다. 5편 동화에는 거짓말쟁이, 암체 같은 짝꿍, 알미운 아이, 전학생 등 다양한 친구가 등장한다.

작가는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이겨낼 힌트를 숨겨준다. 아이들과의 사소한 갈등과 다툼, 교실에서 벌어지는 소동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생생하다.

“거짓말쟁이”는 은수라는 거짓말쟁이로 인해 기호네 반 아이들이 겪는 갈등을 그렸다. 기호는 어느 날 청소시간에 먼지를 날렸다가 은수에게 한바탕 화풀이를 당한다. 그러나 얼마 후 은수는 사과 메시지를 보낸다. 그동안 은수의 거짓말에 골탕을 먹었지만 한편으로 기호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표제작 ‘난 나쁜 친구야!’는 바닷가 마을의 두 아이가 진짜 친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즐거



이다. 서로의 장점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던 정우이와 태욱이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마련된다.

작가는 “은갖 색깔을 한데 모아 놓은 색상표를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색들도 아주 작은 차이로 이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다”며 “비슷하거나 같을 것 같은데도 각기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개성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화산 출신 배 작가는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현재 조선대외원광주교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은꽃무’, ‘파도 너머 푸른 꿈’, ‘생각이 들리는 세계’ 등 작품집을 펴냈으며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글쓰기·독서동아리 온라인 강좌

8~30일까지

광주시민인문학이 오는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며 글쓰기교실, 독서동아리, 철학스터디, 영화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마련돼 있다.

화요일(격주)에는 명혜영 교수가 ‘인문적 글쓰기로 나를 만나다’를, 목요일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목독회-십인십책’을 진행한다. 금요일에는

‘베르그송의 ‘시간과 자유’를 강독할 예정이다. 토요일(오후 2시)에는 영화역후 시간으로 ‘영화로 읽는 삶, 여성, 가족, 개인’이 펼쳐진다.

한편 광주시민인문학은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성인을 위한 다양한 인문 교양 강좌를 진행해왔다. 특히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승화의 완성’을 견인할 수 있는 강의에 초점을 맞췄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 **각** **순** **분** **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